

3. 문화유적

1. 동산리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

지 정 : 이천시 향토유적 제9호
 소재지 : 호법면 동산리 산 121(대덕산)
 크 기 : 높이 2.03m, 폭 79-0.91m,
 두께 0.15-0.20m
 건립연대: 고려 초기 중기

이 마애여래입상의 소재지는 호법면 동산리 121번지로 대덕산(大德山) 남서쪽 기슭이 된다. 불상은 높이 약 2m 폭 80cm 두께 20cm 가량의 장방형 판석(板石)을 세우고 그 전면에 여래의 상반신을 선각(線刻)하였다.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육계(肉髻)가 높직하다. 양 귀는 어깨에까지 닿을 정도로 크다. 옷은 통견의(通肩衣)이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마주댄 아미라여래(阿彌陀如來)의 구품인(九品印) 중 하나로 보이는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왼손은 엄지를 구부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 위에 올려놓았다.

이 불상의 건립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선각된 형태를 보아 고려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 바로 옆에 입석암(立石庵)이라 작은 암자가 있었으나 1978년 봄에 불법건물로 철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입석사는 대덕산에 있다(立石寺

在大德山)”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 불상은 입석사란 사찰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상을 근거로 입석사의 터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불상 서쪽으로 입석재 고개가 있으며 그곳에 커다란 입석이 있다고 한다. 지명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증이 필요한 자료이다. (사진 2:1)

2. 정평공 함부림 묘소(定平公咸傅霖墓所)

소재지 호법면 안평1리

관리자 : 강릉 함씨 문중

정평공(定平公) 함부림(咸傅林)의 묘소는 호법면 안평1리에 있다 본래 서울 근교에 있었는데 198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한 것이다. 1990년에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벌여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그의 묘역은 작은 왕릉에 비견할 만큼 광대하고 주변의 조경이 뛰어나 예사 묘역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우선 묘역 입구부터 치석으로 꾸며 놓았는데 정화사업추진 기념비에 성금자와 사업 내역을 새겨 놓았다.

묘소 입구 왼쪽에 있는 신도비는 장방형 대석에 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화강석이다. 신도비의 전면 상단에 횡서로 「贈純忠補祚功臣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承議郎 陽城縣監淸風金公孝禮之神道碑銘」이라 기록하고, 비문은 4면에 새겼다. 비문의 내용은 김용한(金甯漢)이 짓고, 글씨는 민병승(閔丙承)이 썼다. 전액은 심기택(沈箕澤)이 썼다. 신도비 비신의 규모는 53cm×150cm×27cm이다. 뒷면 말미에 「柔兆執徐泰之小盡 立」이라는 명기가 있어 병진년(丙辰年: 1436, 세종18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도비 옆에 놓인 대석은 옛 묘표를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는 55cm×86cm×38cm이다. 바로 옆에 봉분 안에 있던 석곽(石槨)을 배치해 놓았는데, 석곽의 뚜껑도 완벽하게 남아 있어 중시된다. 석곽의 뚜껑에 「江陵咸氏蘭溪定平公墓所入口」라고 음각해 놓은 것이 흠이다. 아마 묘소의 안내문으로 쓰려고 했다가 지금의 위치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석곽은 화강석인데 규모는 폭 116cm× 길이 290cm× 깊이 64cm이다. 뚜껑은 폭 80cm×길이 280cm×두께25cm이다.

묘소로 오르는 계단은 상당히 가파른 셈인데 화강석으로 조성하였으며 좌우 측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운치를 돋웠다. 묘소는 원형 봉분에 활개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었다. 호석은 두르지 않았으나 전면에 3단으로 장방형의 화강석을

쌓아 전방후원(前方後圓)의 형태를 갖췄다. 전방 양쪽 끝은 경사지게 치석하여 바닥면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도록 하였다. 화강석의 장대석으로 배위(拜位)와 묘소를 구분하였고, 중앙에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북석 등을 설비하였다. 상석만 옛것이며 나머지는 이장할 때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 장명등이 놓여 있는데 매우 독특한 양식이다. 2개의 화강석을 쪼아서 하단부와 상단부를 구분하여 만든 다음, 일체가 되게 올려놓은 것으로 조선초기의 석조 양식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묘소 좌우에는 문인석이 있으며 규모는 어깨폭 65cm×신장 181cm×두께 57cm이다. 머리 부분은 빈약한데 비해 어깨 아래부터 발끝까지는 비대한 편으로 균형미는 적다.

묘소 우측에 새로 세운 묘비는 전면에 「贈純忠補祚功臣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承議郎 陽城縣監淸風金公孝禮之墓 / 贈貞敬夫人寶城吳氏祔」라 기록하고, 묘갈명을 4면에 새겼다. 묘비의 규모는 비신은 66cm×173cm×36cm이다. 비문의 내용은 중 17세손 동호(東鎬)가 지었다. 후손 성란(聖爛) 외 10명이 주선하여 건립한 것이다. 건립연대는 「隆熙紀元後再壬戌(檀紀4315)」 즉 1982년 단오일이다.

(사진 2:2~8)

정평공(定平公) 함부림(咸傅林: 1360-1410)은 조선 개국 공신으로 자(字)는 윤물(潤物), 호는 난계(蘭溪), 시호는 정평(定平),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검교 중추원학사(檢校中樞院學士) 승경(承慶)의 아들이다. 고려 우왕(禡王) 11년(1385)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 좌정언(左正言) 등을 거쳐 공양왕 즉위(1389)에 우헌랑(右獻郎)이 되었다. 그후 형조정랑(刑曹正郎)을 거쳐 1392년 병조정랑 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되었다. 해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예조의랑에 이어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서 상서소윤(尙瑞少尹)을 겸임했고, 명성군(冥城君)에 봉해졌다. 태종 3년(1403)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어 동원군(東原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다음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1408년 형조판서에 오르고 병으로 사직했다가 곧 경기·충청·경상·황해 등 각도의 도관출척사(都觀黜陟使) 동북면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를 역임했다. 성격이 강직하여 직언을 잘 하였으며, 관직을 맡을 때마다 이치(吏治)에 능숙하다는 평을 받았다.

3. 숙인신씨 묘소(淑人辛氏墓所)

소재지 : 호법면 안평1리

관리자 :

숙인신씨(淑人辛氏)의 묘소는 함부림(咸傅林)의 묘소 좌측 기슭에 있다. 함부림의 묘소를 이장할 때 함께 옮긴 것으로 보인다. 묘역에는 장명등 문인석 상석 등 석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묘의 형태는 함부림의 묘와 같다. 다만 크기에 있어 작을 뿐이다. 거의 같은 연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묘비가 없이 중앙에 표석을 세웠는데, 부녀자의 묘소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표석 중앙에 명문이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대충 어림잡아 추정된 것이 「숙인신씨지묘」이다. 정확하지 않아 추후 확인 필요하다. 표석의 규모는 46cm×61cm×14cm이다.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 상석의 규모는 98cm×156cm×20cm이다.

(사진 2:9~12)

4. 유공량 묘소(柳公亮墓所)

소재지 : 호법면 유산1리

관리자 : 문화유씨 하담공파 후손

유공량의 묘소는 호법면에서 마장면 표교리로 가는 국도변 우측 야산 중에 있다. 소재지는 유산1리이다. 그의 묘역 입구 좌측에는 신도비가 있으며, 묘역에는 원형 봉분 3기와 묘표·문인석·장명등·동자석·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 전면에 「有明朝鮮國禮曹參判柳公之墓」라 하였으며, 규모는 47cm×127cm×17cm이다.

신도비는 근년에 후손들이 세워놓은 것이다. 장방형 대석에 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화강석이다. 신도비의 전면 상단에 횡서로 「荷潭公諱公亮神道碑」라 기록하고, 비문은 4면에 새겼다. 비문의 내용은 외척인 이진은(李震殷)이 짓고, 글씨는 11세손 유인식(柳寅植)이 썼다. 조각은 일죽면 송천리의 김종락(金鍾落)이 했다고 기록하였다. 건립을 주도한 사람은 12세손 상렬(祥烈)이다. 신도비 비신의 규모는 62cm×183cm×34cm이다. 뒷면 말미에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하담공의 둘째 아들인 절초당(節初堂) 유훤(柳萱)의 11세손 상렬이 거액을 희사하여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사적을 추가하였다. 측면에 「大韓民國六拾壹年 乙未 月 日」이라는 기록이 있어 1961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3~15)

유공량(柳公亮; 1560~1624)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언명(彦明), 호는 둔옹(屯翁)이다. 익(益)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민사온(閔思濶)의 딸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관에 을과로 급제, 1596년 병조정랑을 시작으로 정언·지평·철산군수·평양서윤·호조참의·동부승지·우부승지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는 무능하다고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선조실록』 편찬에 호군으로 동지사(同知事)가 되어 참여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좌부승지·형조판관·경상감사를 거쳐 황해병사로 있을 때, 봉안군수 신울(申慄)이 도둑을 잡아오자 이를 조정에 보내어 문초하니 문관 김직재(金直哉)가 황혁(黃赫)과 모의하여 진릉군(晉陵君)을 추대하려 하였다고 자백함에 따라 적정(賊情)을 잘 살펴 포획하였다고 공신에 책봉되고 초자(超資)되어 지중추 부사를 겸직하게 되었다. 1615년(광해군 7) 강변칠우(江邊七友)가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과 내통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친국(親鞫) 받을 때 지의금부사로 추관이 되었고, 1619년 일소회시시관(一所會試試官)으로 시관 유대건(兪大建)·이정원(李挺元)·강수(姜燧)가 사정(私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리어 이들로부터 참조되어 사정을 행하였다고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며, 서궁을 폐출하도록 상소하기도 하고 폐출시에 참석도 하였다. 인조가 즉위한 뒤 역모자의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중도부처되었다가 이괄(李适)의 난이 발생하자 연루자로 지목되어 참수되었다. 1627년(인조 5) 이괄의 난 때 피죄인(被罪人) 중 원사(冤死)가 분명한 사람을 신원하라는 교지에 따라 관작이 복위되었다.

5. 흥하손 묘소(洪賀孫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마장면 이평리)

관리자: 남양흥씨 대포리 문중

흥하손(洪賀孫)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행정구역상으로는 마장면 이평리이다)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비·상석·망주석 좌우 각 1기, 문인석 좌우 각 1기가 있으며, 문인석만 옛것이고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문인석은 높이 125cm 가량의 특이한 형태이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 대석에 옥개석을 얹었으며, 비문은 4면에 기록하였다. 묘표 전면에는 「司直修議副尉中軍司正南陽洪公賀孫/ 配淑夫人善山金氏之墓」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17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20대종손 진철(鎭澈)과 17대손 천표(天杓) 등이다. 비신의 규모는 44cm×127cm×18cm이다. 우측 측면에 1978년 무오(戊午) 2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사진 2:16~19)

6. 숙부인 청주경씨 묘소(淑夫人 淸州慶氏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남양흥씨 대포리 문중

숙부인 청주경씨(淸州慶氏)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행정구역상으로는 마장면 이평리이다)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비·상석·문인석 좌우 각 1기가 있다. 문인석만 옛것이고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문인석은 높이 1045cm 가량의 작은 형태이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 대석에 옥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오석이다. 묘표 전면에는 「淑夫人淸州慶氏之墓」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16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19대중손 진철(鎭澈)과 16대손 천표(天杓) 등이다. 비신의 규모는 39cm×110cm×13cm이다. 우측 측면에 1978년 무오(戊午) 2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사진 2:20~22)

숙부인 청주경씨(淸州慶氏)는 홍윤희(洪潤禧)의 아내이며, 홍하손의 며느리이다.

7. 홍계문 단비(洪係文壇碑)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남양홍씨 대포리 문중

홍계문(洪係文)의 단비(壇碑)는 호법면 단천리에 있다. 그의 묘소는 일찍부터 실전되어 대포리(大浦里)에 단비를 세웠었는데, 홍씨의 묘역을 단천리에 조성하면서 이전하여 새로 건립한 것이다. 단비 주변에 망주석과 상석 등 석물은 일반 묘역처럼 조성하였다. 단비 전면에는 「修議副尉南陽洪公係文/ 配淑夫人利川徐氏之墓/ 配淑夫人星州李氏之壇」이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15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16대손 성률(性律)이다. 비신의 규모는 45cm×132cm×21cm이다. 우측 측면에 1987년 12월 3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사진 2:23)

홍계문(洪係文)의 본관은 남양. 윤희(潤禧)의 아들이다. 사정공 홍하손의 묘소 아래에 안장된 청주 경씨(淸州慶氏)는 그의 모친이다. 사원(士元)·사형(士亨) 두 아들을 두었다. 사형은 숙부 계명(係明)에게 입양하였다.

8. 홍사원 묘소(洪士元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남양홍씨 대포리 문중

홍사원(洪士元)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비·상석·문인석 좌우 각 1기가 있으며, 상석만 옛것이고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문인석은 높이 95cm 가량의 작은 형태이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 대석에 옥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오석이다. 묘표 전면에는 「務功郎行江東縣監南陽洪公諱士元之墓/ 配淑夫人陽川崔氏祔」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14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대포리 중중이다. 비신의 규모는 43cm×116cm×18cm이다. 우측 측면에 1987년 정묘(丁卯) 11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방치된 구비(舊碑)는 절반 이상 파괴되었는데, 좌측면에 「九年 庚戌 十一月 日 葬」이라는 기록을 판독할 정도이다. (사진 2:24~26)

홍사원(洪士元)은 계문(係文)의 아들로 강동현감을 지냈고, 부인은 양천최씨(陽川崔氏)로, 부사를 지낸 최숙경(崔淑卿)의 딸이다. 아우 사형(士亨)은 홍문관 부제학 최숙정(崔淑精)의 딸에게 장가갔으며 산소는 단천리 뒷산에 있다.

9. 홍덕종 묘소(洪德種墓所)

소 재 지: 호법면 단천리

관 리 자: 남양홍씨 대포리 문중

홍덕종(洪德種)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1리 홍두표(洪斗杓)씨댁 뒷산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표·상석 등이 있다. 석물은 모두 원래의 것이다. 묘소 전면에 자연석을 다듬어 3단으로 쌓아서 바닥과 구분하였다. 묘소 중앙에 세워진 묘표는 하나의 화강석을 다듬어 조각하였는데 윗부분에 해와 구름 문양을 추상적으로 조각한 것이 특징적이다. 묘표 전면에는 「建功將軍司果洪公之墓/ 淑人韓山李氏之墓」라 새겼다. 후면에는 「嘉靖四十四年 乙丑十一月 日/ 萬曆十四年 癸未 四月 日」이라 새겼다. 홍덕종과 부인의 사망 연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嘉靖) 44년은 1566년(선조1년)이다. 만력(萬曆) 14년은 1587년(선조20년)이다. 묘표의 규모는 46cm×126cm×14cm이다.

(사진 2:27)

홍덕종(洪德種:1568~)은 사원(士元)의 아들로 1568년(선조 1년)에 태어나 건공장군부사과(建功將軍副司果)를 지냈다.

10. 홍여하 묘소 (洪與河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남양홍씨 대포리 문중

홍여하(洪與河)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2기와 묘비·상석·문인석·망주석 좌우 각 1기가 있으며, 석물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문인석은 높이 125cm 가량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비는 화강석의 장방형 대석에 옥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오석이다. 묘표 전면에는 「贈通訓大夫司僕射諱與河/ 配淑人慶州李氏之墓 附左」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10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13대손 진철(鎭澈)과 대포리 종중이다. 비신의 규모는 44cm×127cm×18cm이다. 우측 측면에 1985년 5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사진 2:28)

홍여하(洪與河:1633~)는 본관이 남양. 자는 준원(濬源)이다. 덕종(德種)의 증손이며, 천서(天瑞)의 아들이다.

11. 홍세걸 묘소(洪世傑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남양홍씨 대포리 문중

홍세걸(洪世傑)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에 있다. 그의 부친 여하(與河)의 묘소 위에 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비·상석·망주석 좌우 각 1기가 있다. 석물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상석을 시멘트로 축조한 것이 이색적이다. 묘비 전면에는 「贈通政大夫戶曹參議諱世傑/ 配淑夫人江陵崔氏之墓 附左」라 새겼다. 후면에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9대손 응표(應杓)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세운 이는 12대 종손 진철(鎭澈)과 대포리 종중이다. 비산의 규모는 44cm×123cm×18cm이다. 우측 측면에 1985년 5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다. (사진 2:29)

홍세걸(洪世傑)은 홍여하(洪與河)의 장남으로 통정대부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12. 박영로 묘소(朴永老墓所)

소재지 :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 고령박씨 문중

박영로(朴永老)의 묘소는 호법면 단천리 와룡산 기슭에 있다. 실전되어 방치되었다가 1974년도에 확인된 묘소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묘표, 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 전면에 「高靈后人朴公成均進士永老之墓」라 하였을 뿐 비문은 없다. 묘표의 규모는 34cm×70cm×12cm이다. 측면에 건립한 시기를 새겼는데 1974년 음력 12월 15일이다. 뒷면에 「二十世祖考」라는 표지가 있어 이 묘소가 적어도 500여년 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2:30)

박영로(朴永老)의 생몰연대나 행적은 미상이다. 묘표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인물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3. 박종수 묘소(朴宗秀墓所)

소재지: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건립년대:

박종수(朴宗秀)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매곡1리 중앙농원 안쪽 산기슭에 있다. 그의 묘역에장방형의 묘소 2기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의 묘소이다. 그의 묘역은 근래에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봉분은 모두 267cm×202cm×36cm 규모이며, 시멘트로 호석처럼 들렀다. 묘소 중앙에는 상석·묘표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만 옛것 그대로이고, 나머지 석물은 근래에 후손들이 새로 축조한 것이다.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으로 규모는 90cm×30cm×10cm이다. 묘표 전면에 「贈刑曹判書朴宗秀/ 贈貞敬夫人全義李氏之墓」라 새겼다. 전면 우측에 작은 글씨로 「高靈后人二十三孫」이라는 명기도 새겨져 있다. (사진 2:31)

박종수(朴宗秀)는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충숙공 박난영의 부친이다. 충숙공의 공훈으로 사후 형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4. 박계영 묘소(朴桂英墓所)

소재지: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건립년대:

박계영(朴桂英)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매곡1리 중앙농원 안쪽 산기슭에 있다. 그의 묘역에장방형의 묘소 2기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묘소이다. 그의 묘역은 근래에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봉분은 모두 267cm×187cm×30cm 규모이며, 시멘트로 호석처럼 둘렀다. 묘소 중앙에는 상석·묘표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만 옛것 그대로이고, 나머지 석물은 근래에 후손들이 새로 축조한 것이다.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으로 규모는 85cm×23cm×8cm이다. 묘표 전면에 「行訓練院副正贈刑曹判書朴桂英/ 贈貞敬夫人丹陽禹氏之墓」라 새겼다. 전면 우측에 작은 글씨로 「高靈后人二十四孫」이라는 명기도 새겨져 있다. (사진 2:32)

박계영(朴桂英)은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박중수의 맏아들이다. 충숙공 박난영(朴蘭英)의 형이다.

15. 박규영 묘소(朴葵英墓所)

소재지: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건립년대:

박규영(朴葵英)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매곡1리 중앙농원 안쪽 산기슭에 있다. 그의 묘역에장방형의 묘소 1기가 있는데, 박규영과 부인 보성오씨(寶城吳氏)와 파평윤씨(坡平尹氏)의 합묘이다. 그의 묘역은 근래에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봉분은 모두 360cm×270cm×41cm 규모이며, 시멘트로 호석처럼 들렀다. 묘소 중앙에는 상석·묘표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만 옛것 그대로이고, 나머지 석물은 근래에 후손들이 새로 축조한 것이다.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으로 규모는 88cm×23cm×9cm이다. 묘표 전면에 「行宣川都護府使朴葵英/孺人寶城吳氏/孺人坡平尹氏之墓」라 새겼다. 전면 우측에 작은 글씨로 「高靈后人二十四孫」이라는 명기도 새겨져 있다. (사진 2:44)

박규영(朴葵英)은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중백(仲伯)이다. 박종수의 둘째 아들이며, 충숙공 박난영(朴蘭英)의 형이다.

16. 충숙공 박난영 정려(忠肅公朴蘭英旌閭)

소재지 : 호법면 매곡1리

규모 : 사방 1칸

건립연대 : 조선 후기

조선 인조 때 외교가로 활약한 충숙공(忠肅公) 박난영(朴蘭英 ?-1636)의 정려로, 호법면 매곡1리 부락 상단에 사당과 나란히 있다. 숙종 원년인 1675년에 영의정에 추증되면서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는데, 이 당시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며, 지금의 정려각의 건립연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에 맞배지붕으로 단청을 하였다. 내부에는 뒷면 중앙에 오석(烏石)으로 조성된 현액이 있다. 본래 목판에 새긴 것이었는데 현액의 글씨가 마멸되어 판별하기 어렵게 된 것을 근래에 후손 박성대(朴成大)씨가 다시 기록하여 만든 것이다.

<旌門內容>

忠臣 贈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行 資憲大夫 知中樞府事 諡 忠肅公 朴蘭英之閭 肅廟 乙卯 十一月 日 命旌

(번역)

충신이며,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겸 경연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사 행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시호 충숙공의 정려이다. 숙종조 을묘년(숙종 1년, 1675) 11월 일 명정되었다. (사진 2:33~34)

17. 박난영 사당(朴蘭英祠堂)

소재지 :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규 모 : 정면 3칸 측면 2칸

충숙공(忠肅公) 박난영(朴蘭英)의 사당은 호법면 매곡1리 부락 상단에 정려각(旌閭閣)과 나란히 있다. 병자호란 때 순절한 박난영의 위패를 안치했다. 처음에는 부락 앞쪽에 세워져 있었으나 누차 이전과 중수를 거쳐 현 위치에 새로 건립하여 놓았다. 지금의 사당은 산기슭에 남향으로 위치하여 평지보다 높게 축조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맞배지붕에 방풍판을 달았다. 외삼문 대신 일반가옥의 대문을 달았으며 시멘트블록으로 곡담을 둘러 외부로부터 보호하였다. 사당 중앙에 화강석으로 보도를 놓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처리하였다. 본래 사당 안에 장검(長劍)과 갑주(甲冑) 등 고인의 유품이 보관되어 왔으나 6.25 동란을 거치며 모두 분실되고 칼집만 보관되어 있다. 충숙공과 정경부인 문화유씨의 제향은 매년 음력 4월 28일과 12월 28일에 지내며, 추석과 정월에 차례를 올린다. (사진 2:35~36)

18. 박난영 묘소(朴蘭英墓所)

소재지: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충숙공(忠肅公) 박난영(朴蘭英)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매곡1리에 있다. 그의 묘역은 근래에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비·망주석과 동자석 좌우 각 1기가 있으며, 상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석은 높이 85cm 가량의 매우 작은 형태이다. 동자석만 옛것 그대로이고, 나머지 석물은 근래에 후손들이 새로 축조한 것이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표는 화강석의 장방형 대석에 옥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오석이다. 묘표 전면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行資憲大夫 知中樞府事 諡忠肅公 朴蘭英之墓/ 贈政敬夫人文化柳氏合祔」라 새겼다. 비신의 규모는 52cm×151cm×23cm이다. 우측 측면에 「高靈后人二十四世 一九八三年 四月 日 謹立」이라는 명기가 있어 1983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37~40)

박난영(朴蘭英: ? -1636)은 조선 인조 때 무인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선조 때 면천군수(沔川郡守), 훈련중군(訓練中軍), 창성부사(昌城府使) 등을 지냈다. 병자호란 직전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복잡할 때 회답관(回答官), 선위사(宣慰使), 선유사(宣諭使) 등의 사신이 되어 심양(瀋陽)을 왕래했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나라 장수 마대부(馬夫大), 용골대(龍骨大) 등과 휴전 교섭을 했고, 도원수(都元帥)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명나라를 도우려 출전했다가 청군(靑軍)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 때 조정에서는 마대부의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조선 측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종실 능봉수(綾峰守)의 직위를 군(君)으로 올려 왕제(王弟)라 칭케 하고 형조판서 심집

(沈誼)을 대신이라 하여 적장으로 보내 그들을 속이려 했으나 마대부가 이를 눈치채고 잡혀와 있던 박난영에게 사실여부를 묻자, 박난영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함께 마대부를 속이려고 하다가 거짓말이 탄로되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뒤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신으로 정려(旌闈)하였다.

19. 박제 묘소(朴霽墓所)

소재지: 호법면 매곡1리

관리자: 고령박씨 충숙공파 후손

박제(朴霽)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매곡1리에 있다. 호법면과 용인시 백암면 경계지역인 냇치고개 우측이다. 그의 묘역에는 고령박씨들의 묘소가 여러기 산재해 있다. 박제의 묘소는 안쪽에서 두 번째 위쪽에 있다. 묘소는 원형 봉분으로 합묘이다. 묘표와 망주석·문인석 좌우 각 1기가 있으며, 상석·혼유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소 좌측에 세워진 묘표는 화강석으로 전면의 글자가 훼손이 심하나 윤곽이 아직 남아 있어 판독이 가능하다. 묘표 전면에 「嘉善大夫行長淵都護府使 朴公之墓/ 贈淑夫人光川金氏祔/ 再室貞夫人文化柳氏祔葬」라 새겼다. 비신의 규모는 56cm×80cm×23cm이다. (사진 2:41~42)

박제(朴霽)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청숙(晴淑)이다. 충숙(忠肅公) 박난영(朴蘭英)의 조카이다. 그의 부친은 계영(桂英)이다.

20. 함양부원군 박병충 사당(咸陽府院君朴秉忠祠堂)

소재지 : 호법면 매곡2리

관리자 : 함양박씨 후손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 박병충(朴秉忠)의 사당은 호법면 매곡2리 부락입구에 있다. 정경부인 양성이씨(陽成李氏)와 상산황씨(商山黃氏)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누차 이전과 중수를 거쳐 현 위치에 새로 건립한 것인데, 사당이라기보다는 일반 가옥이라 할 수 있다. 민도리집 형태로 청색스레트기와를 올렸으며, 앞면에 퇴를 달았다. 시멘트블록으로 곡담을 둘러 외부로부터 보호하였고, 대문은 일반가옥과 같다. 사당 안에는 위패와 제탁(祭卓), 병풍이 있다. 위패의 내용은 「靖國勳崇政大夫戶曹判書右贊成奉朝賀咸陽府院君/ 配貞敬夫人陽成李氏/ 配貞敬夫人商山黃氏 神位」으로 되어 있다. 제향은 매년 음력 9월 9일에 올린다. (사진 2:45~46)

21. 곽장군(郭將軍) 묘터 · 곽만원 묘소(郭萬元墓所)

소재지 : 호법면 동산1리

관리자 :

호법면 동산1리에는 곽장군의 묘소라고 전하는 묘소가 있다. 상촌 마을 지나 대덕산 줄기의 가파른 계곡을 올라가 7부 능선 되는 곳에 이르면 곽만원(郭萬元)의 묘소가 있다. 묘표 전면에 「學生玄風郭公萬元 / 孺人善山金氏之墓」라 새기고 뒷면에는 1974년 갑인(甲寅) 4월 27일에 세웠다는 간기를 새겼다. 이 묘역에는 망주석 2기, 상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를 나중에 후손들이 세운 것이라 해도 묘소는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산리에서는 이 묘터를 일러 곽장군 묘터라고 전한다. 아예 곽장군 묘소라고 하는 이도 있다. 오좌자향(午坐子向)으로 북향인 이 묘소가 “곽장군 묘터 운운”되는 이유가 궁금하여 주변을 탐색하던 중 그 위쪽에서 고분을 발견하였다. 이 묘터에 잔존한 호석의 둘레를 측량한 결과 사방 630cm 정도의 정방형 고분으로 추정된다. 호석처럼 보이는 석재는 80cm×50cm×9cm 정도의 규모로 화강암을 자연스럽게 다듬은 판석이다.

이 묘터는 축조 시대가 오래된 적석총일 가능성도 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서 임진왜란 전후에 활동한 곽장군과 연결된 것은 와전일 것이다. 추정하건대 확인 미상의 장군 무덤에 곽씨네가 묘소를 쓰면서 이후에 “곽장군 묘소” 또는 “곽장군 묘터”로 전하였을 개연성이 짙다. 약식 지표조사라도 필요한 자료이다.

(사진 2:41~42)

22. 심공 묘소(沈公墓所)·심호 묘소(沈鎬墓所)

소재지 : 호법면 후안1리, 면사무소 뒤

관리자 : 청송심씨 문중

심공(沈公)의 묘소는 호법면 후안1리 호법면사무소 뒤쪽에 있다. 부인 양천 허씨(陽川許氏)와의 합묘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가 없이 상석의 전면에 「利川府使 沈公之墓 淑人陽川許氏 附左」라 새겼다. 상석의 규모는 87cm×147cm×41cm이다.

(사진 2:49)

심공(沈公)은 조선후기 사람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심경의 묘소 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심경의 조상이 아닌가 한다. 비문이 없어 그의 이름과 행적을 알 수 없다. 상석에 이천부사라는 관직이 명기된 것으로 미루어 그가 이천부사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심호 묘소(沈鎬墓所)

심공의 묘소 아래 좌측에는 심호(沈鎬)의 묘소가 있다. 상석 전면 「靑松沈公鎬之墓 配延日鄭氏 附左」라 새겼다. 묘소 위치나 항렬자로 보아 이천도호부사를 지낸 심경과 형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2:53)

23. 심경 묘소(沈鏐墓所)

소재지 : 호법면 후안1리, 면사무소 뒤

관리자 : 청송심씨 문중

심경(沈鏐)의 묘소는 호법면 후안1리 호법면사무소 뒤쪽에 있다.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와의 합묘(合墓)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대석 위에 오석으로 비신을 세우고 팔작 지붕을 얹은 일반적인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46cm×136cm×20cm이다. 전면에 「通訓大夫利川都護府使 青松沈公鏐之墓 配慶州李氏 附左」라 새기고 후면에는 관력(官歷)을 약기하였다. 측면에 7대손 기섭(起燮)이 글씨를 쓰고 1978년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사진 2:50~52)

심경(沈鏐)은 조선후기 사람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묘비 후면에 새겨진 관력을 보면,道光(道光) 12년(1832, 순조32년)에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24. 강선 묘소(姜澹墓所)

소재지 : 호법면 안평1리

관리자 : 진주강씨 문중

강선(姜澹)의 묘소는 호법면 안평1리 고속도로변 좌측으로 작은 동산 위에 있다. 진주강씨(晉州 姜氏) 일족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 가운데 맨 윗쪽에 있다. 본래는 고속도로 부근에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부인 해주 정씨(海州 鄭氏)와의 합묘(合墓)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망주석과 문인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소실된 채 대석만 남아 방치되어 있다. 상석 전면에 「晉州姜公澹之墓 配海鄭氏 附左」라 하였을 뿐 비문은 없다. 상석의 규모는 89cm×137cm×39cm이다. 문인석의 규모는 39cm×118cm×36cm이다. (사진 2:54~55)

25. 강익구 묘소(姜益九墓所)

소재지 : 호법면 안평1리

관리자 : 진주강씨 문중

강익구(姜益九)의 묘소는 호법면 안평1리 고속도로변 좌측으로 작은 동산 위에 있다. 진주강씨(晉州 姜氏) 일족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에 있다. 본래는 고속도로 부근에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부인 평산 신씨(平山申氏)와의 합묘(合墓)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망주석과 문인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전면에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贈左承旨晉州姜公益九之墓 配贈淑夫人平山申氏 附左」라 하였을 뿐 비문은 없다. 상석의 규모는 89cm×137cm×39cm이다. 문인석의 규모는 39cm×130cm×31cm이다. (사진 2:56~57)

26. 강유 묘소(姜游墓所)

소재지 : 호법면 안평리

관리자 : 진주 강씨 문중

강유(姜游)의 묘소는 호법면 안평리 고속도로변 좌측으로 작은 동산 위에 있다. 진주강씨(晋州 姜氏) 일족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 가운데 맨 아래쪽 좌측에 있다. 본래는 고속도로 부근에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부인 연일 정씨(延日鄭氏)와의 합묘(合墓)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 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 대신 상석 전면에 「知中樞晉州姜公游墓 貞夫人延日鄭氏 祔左」라 하였을 뿐 비문은 없다. 상석의 규모는 89cm×137cm×39cm이다. (사진 2:58)

강유(姜游)는 본관은 진주(晋州), 호법면 안평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말에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문경공(文敬公) 강군보(姜君寶)의 13세 손이며, 효행으로 사헌부 지평에 추증된 진기(震耆)의 손자이다. 그는 승정원 승지(承旨)를 거쳐 한성부 우윤(右尹), 중추부 동지사(中樞府 同知事)를 지냈다.

27. 강진기 묘소(姜震耆墓所)

소재지 : 호법면 안평1리

관리자 : 진주강씨 문중

효자 강진기(姜震耆)의 묘소는 호법면 안평1리 고속도로변 좌측으로 작은 동산 위에 있다. 진주강씨(晉州 姜氏) 일족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 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로 있으며 부인 언양 김씨(彦陽金氏)와의 합묘(合墓)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과 묘표 1기, 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소 오른 쪽에 세워진 묘비는 장방형 대석에 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화강석이다. 묘비의 전면에는 「朝鮮國孝子承議郎 贈通善郎司憲府持平 晉州姜公震耆之墓 恭人彦陽金氏 附左」라 하였을 뿐 비문은 없다. 묘비 비신의 규모는 57cm×137cm×24cm이다. 우측 측면에 「崇禎後三庚戌十月日立」이라는 명기가 있어 조선 정조 14년(1790) 10월 일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석의 규모는 57cm×137cm×24cm이며, 전면에 「贈通善郎司憲府持平 加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參贊官 加贈戶曹參判 晉州姜公震耆之墓 配贈貞夫人 彦陽金氏 附左」라 각자하였다. 加贈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상석은 묘비석 건립 이후에 갖추고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59~60)

강진기(姜震耆)는 조선 영조 때 효자로, 자는 덕수(德叟), 본관은 진주(晉州), 고려말 대제학을 지낸 강희중(姜淮中)의 9대 손이며, 수졸재(守拙齋) 종열(宗說)의 증손이다. 부친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익구(益九)이다. 평소부터 부모를 극진히 섬겨오던 중, 부친이 위독하자 대변을 짚어 맛보아 병세를 판단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는 등 효행이 뛰어났다. 1729년(영조 5)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기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증직(贈職)하였으며, 정려(旌閭)의 은전을 베풀었다.

28. 한철원 묘소(韓喆源墓所)

소재지 : 호법면 매곡2리

관리자 : 청주한씨

건립연대: 1992년 개축

한철원(韓喆源)의 묘소는 호법면 매곡리에서 단천리로 가는 국도변 우측 야산(샘표공장 옆)에 있다. 소재지는 매곡2리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 봉분·묘표·망주석 좌우 각 1기, 상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은 화강석으로 호석을 둘렀다. 묘비는 화강석의 대석과 개석, 오석의 비신으로 축조하였다. 묘비의 규모는 94cm×118cm×18cm이다. 전면에 「武科 禦侮將軍行宣傳官贈嘉善大夫兵曹參判淸州韓公之墓/貞夫人 漢陽趙氏」라 하였다. 묘비 후명에 1992년 18대손 한필동이 묘역을 개축하고 건립하였음 기록해 놓았다. (사진 2:61)

한철원(韓喆源)은 조선 철종때 사람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덕윤(德潤), 호는 취송(翠松)이다. 선전관(宣傳官) 한전(韓瑛)의 7세손으로 1863년(철종 14) 호법면 단천2리에서 태어났다. 벼슬은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29. 단천리 성지(丹川里聖地)

소재지 : 호법면 단천1리 산 81

관리자 : 이천 성지개발위원회

단천리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남한 산성에서 순교한 바오로 정은(鄭潑)과 정베드로의 가묘(假墓)가 있는 곳이다. 1987년 그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천 성지 개발 위원회에 의해 축조되었다. 현재 단내성지에는 매해 10,000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찾아와 순교자의 묘를 참배하고 순교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이천성지 개발위원회에서는 단내성지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을 마련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오로 정은(鄭潑)과 정베드로의 묘소는 성지 우측 산기슭에 나란히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조성하였다. 그의 묘소에는 장방형의 봉분과 십자가 모양의 묘표 1기가 있다. 묘표에는 「故鄭바오로潑之墓 一八〇四 甲子生 一八六六年 十二月 廿七日 殉教」라고 새겼다. 석조가 아닌 시멘트로 조성된 묘표이다. 묘표의 규모는 가로 44cm 세로 93cm의 십자가에 두께 19cm이다. 우측에는 1981년 3월 25일 정안드레아 신부가 쓴 약력사비(略歷史碑)가 있다. (사진 2:62)

정은(鄭潑)

정은(1804-1866)의 자(字)는 성재(盛哉)이고 천주교 세례명은 바오로이다. 본관은 동래정씨(東萊鄭氏). 시조 정회문(政繪文)의 25세손으로 사직서령공파(社稷署令公派)에 속한다. 그의 집안이 이천에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은 정은의 6대조 만천공(晩川公) 정홍원(鄭弘遠, 1568-1636) 때부터이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필선(弼善)에 이르렀던 만

천공이 병자호란을 피해 단내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그는 1804년 단내에서 부친 언겸(彦謙, 1740-1808)과 모친 김해 허씨(테레사)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인은 남양 홍씨(마리아)이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그가 천주교에 입교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846년 이전인 것은 확실하다. 병오박해(1846) 때 순교한 김대건 신부를 만나 성사(聖事)를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난 병인년(1866) 11월 13일(양력 12월 2일)에 체포되어 광주부(廣州府) 즉 남한산성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8일(양력 12월 27일)에 순교(殉教)하였다. 시신은 후손에 의해 옮겨져 현재 그 묘는 단내에 있다. (사진 2:63)

정 베드로(鄭 Petrus)

정 베드로(?-1866)는 정은의 재종손(再從孫)이다. 그러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정 베드로는 대부(大父) 정은이 체포되자 자수하여 정은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같은 날 순교하였다. 그의 묘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 2:64)

<참고 문헌>

정규량, 『단내 정씨 가사』, 1931

한국교회사연구소,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1987, 한국교회사연구소

정운택, 『검은 바위』, 1977, 교회사

하성래, 『순교자 윤유일(바오로) 순교자 정은(바오로) 평전』, 1988, 황석두 루가서원

30. 방지거 정일동 묘소(鄭一東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동래정씨 문중

방지거 정일동(鄭一東:1786-1828)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 와룡산 기슭에 있다. 그의 묘터는 본래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과 십자가 모양의 묘표 1기가 있다. 묘표에는 「鄭방지거 一東之墓 一八二八終 年六十二 戊子生/ 金발벼라 一八二八終 年六十二 戊子生」라고 새겼다. 석조가 아닌 시멘트로 조성된 묘비이다. 규모는 가로 46cm 세로 82cm의 십자가에 두께 19cm이다. 이천에서 가장 오래된 시멘트조 묘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사진 2:65)

31. 야고버 정의묵 묘소(鄭義默墓所)

소재지: 호법면 단천리

관리자: 동래정씨 문중

야고버 정의묵(鄭義默:1798-1850)의 묘소와 묘비는 호법면 단천리 와룡산 기슭에 있다. 부인 南엘리사벗과의 합묘이다. 그의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과 십자가 모양의 묘표 1기가 있다. 묘표에는 「故鄭야고버 義默之墓 一八五〇終年五十二 庚戌生/ 南엘리사벗 一八四六終年六十二 丙午生」이라고 새겼다. 석조가 아닌 시멘트로 조성된 묘비이다. 규모는 가로 46cm 세로 82cm의 십자가에 두께 19cm이다. (사진 2:66)